

歡 迎 辭

새마을 기술봉사 활동은

새마을 기술 봉사단 중앙회의 존경하는 안경모 부회장님 김기형 의 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본 도의 서정상 새마을 기술 봉사 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또한 경향 각지에서 태도하신 각 시도의 새마을 기술 봉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도내의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새마을 기술 봉사단 중앙회 주관하에 본 도에서 제 3회 전국 새마을 기술지도 사례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뜻 있는 모임을 본 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민관식 회장과 본 발표회의 개최를 위하여 진력하신 본 도의 단장 서정상 박사님 그리고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과학기술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진력해 오신 사계의 석학 제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해온 새마을 지도자 및 측면에서 이를 지원해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지난 8년 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가난과 나태와 부조리를 제거해 가면서 도약을 향한 정신 개혁을 가져 왔으며 풍요와 의욕과 협동을 이 땅 위에 심으면서 탐스러운 조국 근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농은 과학화되어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었고 농어촌은 새롭게 근대화를 가속화하면서 획기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면서 선진형의 마을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과 친하고 상부상조의 미풍을 되살려 서로 돕고 협동하며 공중 도덕과 질서를 확립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며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추진하는 등 도시 새마을 운동은 깊숙히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각계 각층의 사회 단체에서는 서정쇄신과 사회 부조리를 일소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사회적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노사간의 협조와 능률이 향상되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 대망의 100억을 수출

새마을 운동의 과학적 추진력



黃 寅 性 知 事

을 달성하는 등 사회의 구석 구석까지 새마을 운동이 충만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오늘날 건 국민의 절대적인 참여 속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렁찬 민족 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족사의 찬연한 영광의 금자탑을 이룩한 새마을 운동은 비록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으로 널리 그 진가를 평가받게 되었고 선, 후진국을 막론한 많은 국가들이 정부 기관과 학계의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새마을 현장을 보고 배우고 연구해 가고 있으며 그 국가의 수는 7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협동 단결하여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슬기로운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갖는 새마을 기술지도 사례 발표회는 전국의 모든 새마을 현장에서 직접 기술 지원 활동사업을 통하여 경험한 많은 과제들을 종합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법의 정립과 선진형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진지하게 토의 발표함으로써 이를 체계화 또는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새마을 운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대학교수 여러분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등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새마을 기술 봉사단 여러분들께서 자진 참여하여 봉사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선도하고 기술 지도를 담당하여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올림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과학적이며 기술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뒷받침 하고 있음은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여러 강사님과 각 도의 사례 발표의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 기술 봉사단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위해서 내무부와 과학기술처에서 장관님을 대리한 임석관께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새마을 지도자의 앞날에 더욱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사에 가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도지사 황 인 성